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강순행(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Italia)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속격명사구들이 보여주는 위미역 위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어 속격 명사구가 가지는 의미적 중의성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명사구 내에서 속격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보이는 논항들의 선형성은 통사구조 내 위미역 위계에 따른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격구문의 의미와 분류, 속격 표지의 실현과 탈락 그리고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속격구문의 가지는 논항의 위미역 위계를 어떻게 통사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속격의 특징

한국어 속격 명사구에 대한 연구는 그 구성과 관련하여 핵명사와 선행명사 간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속격표지 ‘의’의 실현 양상과 그 조건을 다룬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1 한국어 속격의 의미와 분류

속격은 명사 간의 소유 관계의 의미에만 제한되지 않고, 속격 표지 ‘의’에 의해 연결된 명사들의 관계에 따라 ‘소속(누리의 학교), 존재(새들의 천국), 관계(누리의 누나), 청소년의 범죄(행위주역), 정원의 나무(장소), 대구의 사과(근원/출처), 개의 주인(대상), 약간의 물(양), 파란 눈의 여자(외양), 평화의 세계(특성)…’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통사 의미적 관계를 바탕으로 속격 명사구를 논항구조와 비논항구조로, 논항구조에 따른 속격명사는 기저 문장의 변형에 따라 다시 주어적, 목적어적 그리고 부사적 속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a. 학생의 질문	“학생이 질문하다”	(주어적 속격)
b. 역사의 연구	“역사를 연구하다”	(목적어적 속격)
c. 주말의 산책	“주말에 산책하다”	(부사적 속격)

2.2 한국어 속격의 형태: ‘의’의 수의적 출현

속격표지 ‘의’는 수의적 출현과 관련하여 한국어 속격구문은 아래의 예처럼 ‘의’의 출현이 의무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 a. 누리*(의) 공부 “누리가 공부하다”
- b. 한국어(의) 공부 “한국어를 공부하다”
- c. 한국어(의) 발표 “한국어에 대한 발표하다”
- (Cf. 한국어 발표 “한국어로 발표하다”)

"N₁+의+N₂"로 구성된 한국어 속격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핵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선행명사의 통사적 관계에 따라 ‘의’의 출현이 결정될 수 있으며, 아래의 예 (3d, 3e)처럼 비논항적 요소와 결합된 속격명사구에서는 탈락이 불가능하다(박정섭 2002: 913-914).

3. a. 포로(의) 석방
- b. 화물차(의) 운전
- c. 고양이(의) 사진
- d. 최선-*(의) 보호
- e. 충격*(의) 패배

신선경(1999: 70-72))에서는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를 서술관계를 갖는 예와 비서술적집합 관계를 갖는 예로 구분하고 있다.

4. a. 시계*(의) 정확성/한복*(의) 아름다움/컴퓨터* (의) 편리함
- b. 철수*(의) 오해/봉사자들*(의) 활동
5. a. 감격*(의) 우승/사랑* (의) 학교/사랑의 묘약/행운의 여신 (비유적 표현)
- b. 이순신*(의) 거북선/피타고라스*(의) 정리/셰익스피어*(의) 햄릿 (고유명사화된 명사구)
- c. 3분* (의) 1/소득* (의) 10%/소리* (의) 파장/빛* (의) 속도 (전체와 부분)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경우는 핵명사와 수식명사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아래와 같다(최기용 1995, 김인균 2003, 박정섭 2003, 박소영 2014 등). 예 (5)에서 선행명사가 보통명사의 소유자역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5a)처럼 임의적 출현이 가능하지만 소유관계를 나타내더라도 핵명사의 위치에 고유명사가 대치되는 경우에는 ‘의’가 생략될 수 없다(박소영 2014: 613-614).

6. a. 이광수(의) 소설 (Cf. 이광수*(의) 무정)
- b. 철수(의) 신발 (Cf. 철수*(의) 나이키)

신선경(1999: 76-77)은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경우를 집합관계 명사구들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7. a. 교회(의) 종소리/한국(의) 영화 (처소와 사건의 관계)
- b. 어머니(의) 손/인간(의) 뇌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신체 부분)
- c. 영희(의) 동생/ 우리(의) 엄마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친족 관계)

- d. 철수(의) 그림/ 외삼촌(의) 집 (양도할 수 있는 소유)
- e. 고등학생(의) 절반 (전체와 부분 관계)
- f. 한번(의) 실패/다섯 잔(의) 술 (수와 대상의 관계)

소유자역 논항이 다른 논항과 함께 나타나는 (7a)와 같은 경우에는 ‘의’의 탈락이 자유롭지 않다(박정섭 2003: 229).

- 8. a. 수집가??(의)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 b. 수집가??(의) 렘브란트의 초상화

지금까지 논의된 속격표지 ‘의’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 a. ‘의’의 실현은 선행 명사가 가지는 논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b. 속격이 명사구에서 주어역할을 하는 경우는 ‘의’가 실현되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 d. ‘의’의 실현은 비논항적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비논항적 요소와 결합된 속격 명사구에서 ‘의’의 실현은 의무적이다.
- e.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속격명사구에서 ‘의’의 실현은 의무적이다.
- f. 선행 명사가 뒤 따르는 일반 명사에 대해 소유자역의 의미를 가질 때 ‘의’의 실현은 임의적이다.
- g. 소유 관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고유 명사가 핵명사인 경우에는 ‘의’의 실현은 필수적이다.
- h. 속격이 처소와 사건 사이의 관계, 양도 할 수 없는 소유의 관계, 신체의 일부와 친족 관계, 양도 할 수 없는 소유의 관계, 전체와 일부 관계를 나타낼 때 ‘의’의 출현이 임의적이다.
- i. 속격이 속격명사구에서 유일한 논항인 경우는 ‘의’의 출현이 임의적이지만 다른 논항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무적이다.

3.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중의성과 의미역 위계

3.1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중의성

아래의 예 (10a)에서 ‘누리’는 ‘집을 소유 한 사람’, ‘집을 설계 한 건축가’ 또는 단순히 ‘누리가 정말 좋아해서 매일 언급하는 집’이거나 ‘매일 가는 집’일 수도 있다. (9d)에서도 ‘누리’는 ‘선물을 만들거나 준비한 사람, 선물을 받을 사람 또는 선물을 선택하거나 계획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a. 누리의 집
- b. 누리의 선물

한국어 속격 명사구의 의미적 중의성과 관련하여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일 속격이 명사구에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면, 속격이 중첩된 경우에도 중의성이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속격의 위치에 따라 해석적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핵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 사이의 어순 제약, 즉 의미역 위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11. 그의 다빈치의 초상화"
 - a. 그가 소유한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소유자역)행위주역)

- b. 그가 소유한 누군가가 다빈치를 그린 초상화 (소유자역>대상)
- c. 그가 다빈치를 위해 그린 초상화 (행위주역>대상)

12. [소유자역] > [행위주역] > [대상] > [명사]¹⁾

3.2 한국어 속격의 의미역 위계

Grimshaw(1990)가 제안한 의미역 위계 "Agent>Experiencer>Goal/Source/Location>Theme"를 바탕으로 한국어 속격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자.

13. [Experiencer>Theme>NP]

- a. 히틀러의 유대인의 증오
- b. *유대인의 히틀러의 증오
- c. 한국인의 김치의 사랑
- d. *김치의 한국인의 사랑

14. [Experiencer>Source>NP]

- a. 그들의 이별의 슬픔
- b. *이별의 그들의 슬픔

15. [Agent>Source>Theme>NP]

- a. 한국회사의 이탈리아의 올리브유의 수입
- b. *이탈리아의 한국회사의 올리브유의 수입
- c. *올리브유의 한국회사의 이탈리아의 수입

16. [Agent>Time>NP]

- a. 아버지의 주말의 산책
- b. *주말의 아버지의 산책

17. [Time>Theme>NP]

- a. 주말의 한국어의 수업
- b. ??한국어의 주말의 수업

18. [Agent>Location>NP]

- a. 누리의 베네치아의 여행
- b. *베네치아의 누리의 여행

19. [Agent>Instrument>Theme>NP]

1) 이러한 어순은 앞장에서 소개된 명사구의 문법성을 바르게 예측할 수 있다.

- i. a. 수집가의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 b. *아리스토텔레스 수집가의 초상화
- c. 수집가의 램브란트 초상화
- d. *램브란트의 수집가 초상화

- a.? 어머니의 물로의 이불의 빨래
- b. *물로의 어머니의 이불의 빨래
- c. *이불의 어머니의 물로의 빨래

20. [Patient>Goal>NP]

- a. 한국 자동차의 유럽의 진출
- b. *유럽의 한국 자동차의 진출

21. [Agent>Patient>Goal>NP]

- a. 한국 정부의 쌍용 자동차의 해외의 매각
- b. *쌍용 자동차의 한국 정부의 해외의 매각
- c. *해외의 한국 정부의 쌍용 자동차의 매각

지금까지 논의된 논항의 계층성을 포함하는 의미역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²⁾

22. [Possessive>Agent/(Experiencer)>Patient>Time>Instrument>Location>Theme>NP]

4.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DP 구조

4.1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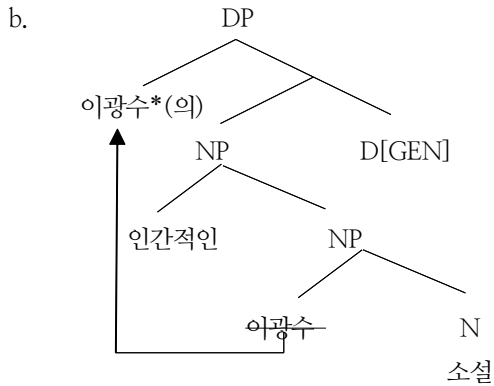
4.1.1 격분석

(23b)과 같은 명사구에 대한 Abney(1987)의 DP분석을 바탕으로 박소영(2014: 621-623)은 (24a)와 같은 형용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를 (24b)처럼 분석한다.

- 23. a. [NP Determinante N] (명사구 NP분석)
- b. [DP D NP] (명사구 DP분석)

2) Agente와 Experiencer 그리고 “Source/Time/Location과 Goal”사이의 어순은 테스트되지 않았다.

24. a. 이광수의 인간적인 소설



위 구조 (24)에서 소유주 논항 ‘이광수’는 NP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 생성되지만 격의 인가와 속격 ‘의’의 음성적 실현을 위해 DP의 지정어 위치로 의무적 이동을 겪게 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Aboh(2010)와 Kayne(1994)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인구어 속격 명사구는 크게 “소유주>소유물” 또는 “소유물>소유주”의 순서로 문장에 나타나는데 기본 어순은 영어의 예 (25)처럼 “소유주>소유물”이며 “소유물>소유주”의 어순 (25b)는 소유물이 속격을 부여받기 위해 소유주의 좌측으로 이동된 결과로 분석한다.

25. a. Mary’s picture
b. A picture of Mary

26. a. [DP[D°[IP DP Mary’[I°s [DP picture]]]]]
b. [DP[D°A [FP [DP picture]][F of [IP DP Mary [I°[DP picture]j]]]]]

위의 예에서 ‘s가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소유물이 소유주를 선행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물인 picture가 소유주인 Mary를 선행하는 기능투사구인 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기능핵 of로부터 보어인 Mary가 격 부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윤(2016: 203-204)은 (27a)와 같은 한국어 속격명사구를 (27b)처럼 기능구조 IP를 포함하는 DP구조 내에서 속격을 분석한다.

27. a. 학생의 가방
b. [DP[D°[IP DP 학생[I°의 [DP 가방]]]]]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의 분포가 아래의 예처럼 광범위하므로 단순히 ‘의’를 속격 표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한 안덕호(2012: 610-611)의 논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 28. a. 친구의 집 (소유자역)
- b. 한 권의 책 (수량)
- c. 내일의 날씨 (시간)
- d. 제주도의 날씨 (장소)
- e. 기쁨의 순간 (수식어)
- f. 영화배우와의 인터뷰 (동반자)

- g. 돌로의 공격 (도구)
- h. 미국으로부터의 소식 (기원)
- i. 미국으로의 여행 (도착점)

위의 예 (28a)에서 선행명사 ‘친구’는 핵명사 ‘집’의 논항으로 소유자역 의미역을 받으므로 ‘의’를 격조사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예들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선행명사들을 의미역을 부여받는 논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8f)–(28g)에 들은 ‘의’의 선행요소로 부사격 조사들이 오고 있다. 부사격 조사들의 범주를 후치사라고 한다면 ‘의’와 결합한 요소를 후치사구로 분석해야 하는데, 후치사구에 격이 표시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Cf. 김용하 2019: 39–40).

4.1.2 명사핵 선행 굴절형과 명사 수식어 표지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안덕호(2012)는 명사핵을 선행하는 요소들에 실현되는 ‘명사핵 선행 굴절형 (prenominal inflection)’으로 관형사형어미 ‘ㄴ’과 같은 요소로, 모두 관형형 요소로서 동일한 통사적 지위를 갖는다고 분석한다(Ibid., 61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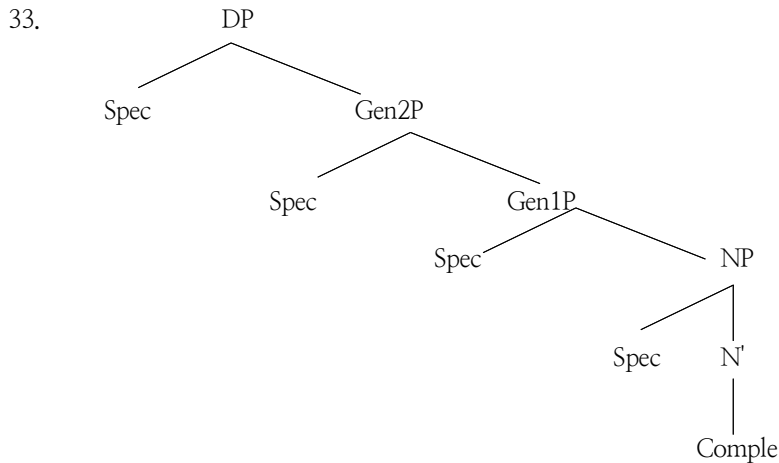
29. ‘의’와 ‘ㄴ’은 모두 명사핵 선행 환경(prenominal context)에서만 출현이 가능하다.
- a. 영이가/*의 [[츨스키의] 책]을/*의 철수에게/*의 주었다.
 - b. 영이가 [[철수가 만난] 아이]를 만났다/*만난.
30. ‘의’와 ‘ㄴ’은 모두 전체 형태론적 복합체내에서 마지막에 부가되는 접사들이다.
- a.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들-의-만/*어린이-의-들-만
 - b. 아끼-시-터-ㄴ (아끼시던)/*아끼-시-ㄴ-터/*아끼-ㄴ-시-터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ㄴ’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의’는 [-V] 속성을 가지는 요소에만, ‘ㄴ’은 [+V]의 속성을 가지는 요소에만 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루는 이형태적 변화형(allomorphic variant)의 관계라는 것이다. 홍용철(2013) 또한 한국어 ‘의’는 아래의 예 (31)처럼 ‘의’와 결합한 요소가 관계절과 동일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격조사가 아닌 관계절 표지와 같은 범주의 수식어 표지로, 또한 (32)처럼 행위주역 논항인 “정부의”가 관계절 앞에, 대상 논항인 “TGV의”가 관계절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사 확장 범주구조에서 기능범주 영역의 부가어 위치에 나타나는 요소로 보고 있다(Ibid., 339–340).

31. a. {철수의, 획기적인} 이 모든 책들
 b. 이 {철수의, 획기적인} 모든 책들
 c. 이 모든 {철수의, 획기적인} 책들
32. a. 갑작스런 정부의 TGV의 도입
 b. 정부의 갑작스런 TGV의 도입
 c. 정부의 TGV의 갑작스런 도입

그러나 속격 명사구 GenPs를 NP와 DP사이에 부가되는 요소로 분석한다면 그 통사구조는 아래의 (33)과 같을 것이며 (강순행 2009: 17), 이러한 통사구조로는 한국어 명사구에서 관계절과 서로 다른 유형의 형용사들이 공기하는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어순제약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34. a. [누리가 산] 빨간 새 차 [RC>AP₁>AP₂> NP]
 b. ??빨간 [누리가 산] 새 차 [RC>AP₁>AP₂> NP]
 c. ??새 [누리가 산] 빨간 차 [RC>AP₁>AP₂> NP]
 d. ??[누리가 산] 새 빨간 차 [RC>AP₂>AP₁> NP]

위의 예에서 초점(Focus)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4b, 34c)예들은 비문 처리될 수 있으며, 예 (34d)는 형용사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어순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 장에서 확인한 명사구 내에서 속격에 의해 실현되는 논항의 선형성에 따른 통사구조의 계층성을 설명하기 위해 명사구내 요소들을 NP와 DP 층위에 상정된 기능구조F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요소로 분석한 Cinque(2010)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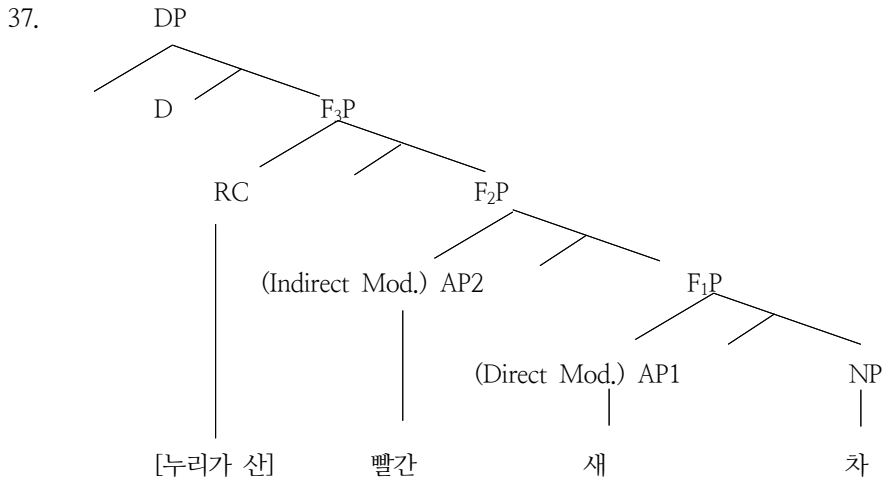
4.1.3 제안 : 한국어 속격의 지정어 분석

먼저, 속격 명사구 GenP와 관계절 RC 그리고 형용사 AP를 포함하는 명사구의 어순을 다음과 같을 것이다.

35. a.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빨간 새 차
 b. ??누리의 내가 어제 본 빨간 새 차
 c. ?? 멋진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새 차
 d. ??빨간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새 차
 e. ??새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빨간 차
 f. ?내가 어제 본 멋진 누리의 빨간 새 차
 g. ?내가 어제 본 빨간 누리의 멋진 새 차
 h.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멋진 새 차
 i.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새 빨간 차
 j.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새 멋진 차

36. [RC>GenP(PossessiveP)>AP₁>AP₂>AP₃>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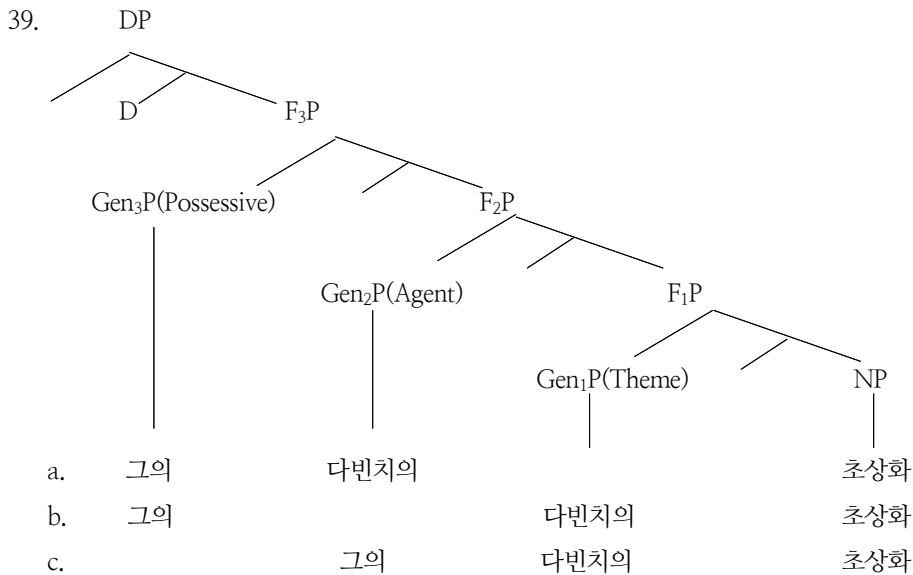
Cinque(2005)의 “형용사의 이원적 분류”를 따르면 명사구 내 요소들의 선형적 어순은 구조적 계층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직접 수식 형용사와 간접 수식 형용사로 구분하여 NP와 DP 사이에 위치한 FP의 Spec에 위치하는 지정어적 요소로 (37)처럼 분석할 수 있다.



이 DP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속격구문 GenPs를 형용사와 관계절의 위치처럼 DP와 NP 사이 SpecFP에 위치하는 요소로 고려한다면 속격의 가지는 의미론적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8)의 의미적 중의성은 (39)에서처럼 구조적 위치에 따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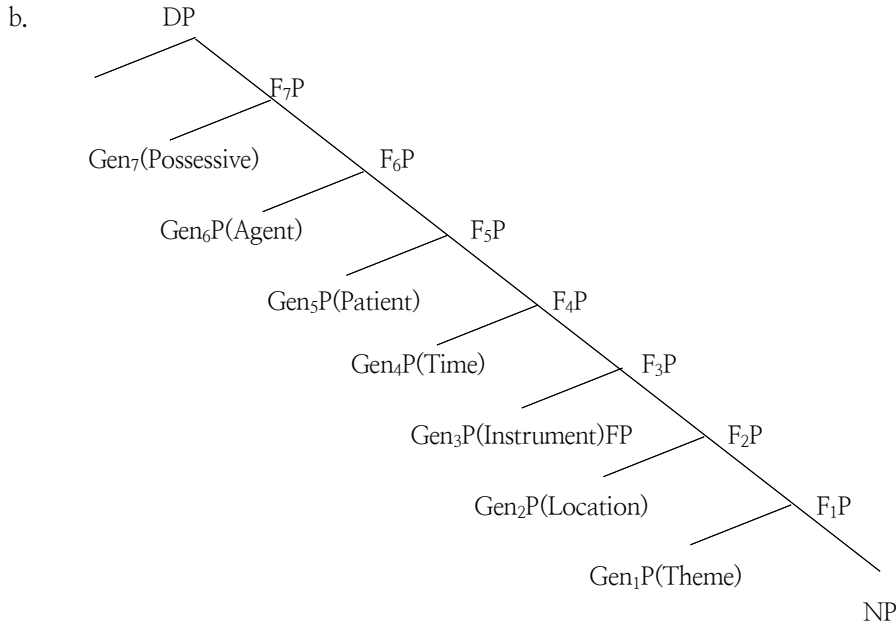
38. 그의 다빈치의 초상화

- a. 그가 소유한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Possessor] > [Agent] > [N]
- b. 그가 소유한 누군가가 다빈치를 그린 초상화 [Agent] > [Theme] > [N]
- c. 그가 다빈치를 위해 그린 초상화 [Agent] > [Theme] > [N]



또한, 2.2장에서 논의된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 (40a)는 (40b)와 같은 통사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0. a. [Possessive > Agent > Patient > Time > Instrument > Location > Theme > NP]



5.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한국어 속격이 나타내는 논항들의 의미역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며 이를 통사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Cinque (2010)의 DP구조 내에서 기능구조 FP의 지정어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2.1장에서는 한국어 속격구문의 유형을 핵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었다. 2.2장에서는 속격의 가지는 논항구조와 통사적 특징에 따라 속격 표지 ‘의’의 실현과 생략 조건들을 관련 기존연구들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한국어 속격구문의 의미적 중의성과 의미역 위계를 Grimshaw(1990)와 Longobardi(2001)에서 제시된 “[소유자역]>[행위주역]> [대상]>[명사]”의 어순을 바탕으로 테스트하여 “[소유자역]>[행위주역]/[경험주역]>[피행위주역]>[시간역]>[도구역]>[장소역]>[대상역]>명사]”의 결과를 얻었다. 4장에서는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박소영(2014)과 조성운(2016)에서 논의된 “격분석”과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를 명사핵 선행 굴절형과 명사 수식어 표지로 분석한 안덕호(2012)와 홍용철(2013)의 제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가 격조사 또는 격표지가 아니라 명사구 내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의 ‘ㄴ’과 관계절과 같은 명사 수식어 표지로 취급하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지만, 명사구에서 형용사와 관계절이 또는 형용사들이 중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어순의 선형성과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들의 의미역 위계를 통사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가 부착된 명사구 즉, GenPs가 단순히 명사구NP와 한정사구 DP 층위 사이에 부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Cinque(2010)가 제안한 DP구조 내 기능구조 FP의 지정어로 분석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 강순행. 2006. 이탈리아어 명사구의 기능구조. *이탈리아어문학* 18. 1-37.
- 강순행. 2008.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명사구내 통사적 계층성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25. 1-34.
- 강순행. 2011. 이탈리아어 속격구문 연구: 통사구조 내 의미역 위계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33. 1-27.
- 김용하. 2019. 한국어 속격 조사 '의'의 지위에 대한 관견. *현대문법연구* 98, 37-50.
- 김인균. 2003. 관형명사구의구조와의미관계. *국어학*41, 198-223.
- 김지홍. 1995. 명사구의 확장과 그 논항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20. . 81-177.
- 목정수. 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437-470.
- 박소영. 2014. 한국어 속격 '의'의 실현과 DP가설. *생성문법연구* 24. 613-629.
- 박정섭. 2003. 명사구에서의 논항 실현에 관한 고찰-불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16. 223-248.
- 박정섭. 2003. 속격 표지 '의'의 수의성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16. 3-18.
- 박호관. 2001. 국어 명사구의 유형과 통사구조. *우리말글* 23. .25-48.
- 신선경. 1999. 명사구 형성과 속격 표지 '-의'. *울산어문논집* 13·14, 55-80.
- 최경봉. 1995. 국어 명사 관형구성의 의미결합 관계에 대한 고찰. *국어학* 26. 33-58.
- 시정곤. 2003. 단어결합과 의미역 위계구조. *언어연구* 19-2. 271-287
- 안덕호. 2012. 최소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유격: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 37. 607-621.
- 이선웅. 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서울: 월인.
- 이종근. 2015. 한국어 속격표지 '의'의 분포와 속격의 본질. *생성문법연구* 25, 277-306.
- 조성윤. 2016. 이탈리아어 di 구문의 통사구조 연구: 장소 전치사 구문과 속격 구문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48. 201-223
- 최기용. 1996. 의미역 배정과 관련된 명사의 성격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6. 85-119.
- 홍용철. 2010.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 *생성문법연구* 20. 27-50.
- 홍용철. 2013. 소유격 표지 “의”의 분포와 본질. *생성문법연구* 23. 321-345.
- Aben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D. dissert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Aboh, E.O. 2010. *The P Route in Cinque G. & Rizzi L. (ed.s) Mapping Spatial PP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ume 6, Oxford Studies in Comparative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pp. 225-260.*
- Cinque, G. 2005b. “The Dual Source of Adjectives and XP-vs. N-Raising in The Romance DP”. Ms., University of Venice.
- Cinque, G. 2010, *The Syntax of Adjectiv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 2000. “A Note on Prepositions, Complementizers, and Word Order Universals”. In *Idem Parameters and Universals*. 314-32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obardi, G. 2001, "The structure of DPs: Some Principles, Parameters, and Problems." In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eds.) by Mark Baltin & Chris Colli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p. 562-603.

〈토론〉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통사적 지위와 의미역 위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용(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속격명사구들이 보여주는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속격 구문의 의미와 분류, 속격 표지의 실현과 탈락 그리고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를 통사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의에도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그리고 독자의 부족으로 본 연구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본 연구는 한국어 속격의 의미와 분류에 있어서, 선행 연구의 논의들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내용 가운데에 이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분과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속격 ‘의’의 의미 분류에 의거하여,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미적 중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Grimshaw의 의미역 위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속격이 가지는 의미역 논항의 위계를 제시하셨는데, 의미역 논항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제시된 구문 가운데 비문법성에 있어 확실하지 않은 구문들의 최종 위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속격의 통사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형용사와 관계절의 위치처럼 FP의 spec에 위치하는 지정어적 요소로 속격을 설정하여, 의미론적 모호성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 연구의 설정에 동의합니다. 제시하신 구조에 의거하여, 앞의 비문법적인 구문들이 어떻게 비문법적으로 판정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된다면 그 효용성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